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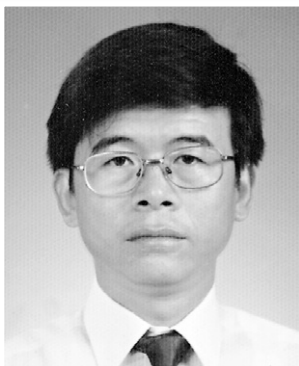
## 엄마의 경고

아 이들은 엄마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유는 너무 자주 들어서 고의적으로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찾길에서 놀지마라 하고 하루에 백번씩 말한다면 반대로 아이는 찾길에서 놀고 싶다는 충동에 빠진다는 것이다. 물론 1%의 아이들은 순응한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백번의 말 보다는 한 번의 행동이 낫다는 것이다. 또 예를 들면 아이에게 불의 위험성을 알려주려면, 불의 역사나 차가움과 뜨거움의 비교 연구에 대해서 아이와 장시간 토론하기 보다는 뜨거운 주전자 뚜껑을 한번 만지게 해주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낫다는 것이다. 아동심리학에서 나온 글이지만 누구나 다 아는 말이다.

원래 사람들은 동물에 비해서 미래에 닥쳐올 위험성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다. 둔감한 건지, 본성인지, 후천적 바보형질 획득인지는 알 수 없다. 수천 권의 책을 뒤져 봐도 인류는 모든 재앙을 겪고 반성하고 다시 재앙을 맞이했다. 지진을 감지하는 쥐, 태풍을 예상하는 새, 큰물에 대비하는 개구리 보다 난 인간이 천재지변에 취약한지 정말 궁금하다. 한때 유럽 전체를 덮었던 로마가 망한 이유가 호화 공중목욕탕과 관련이 있다는 사회학자의 주장에 짜증이 난다. 차라리 인간은 원래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낫질 아니한가?

아무하고나 이야기를 하다가 느낀 생각이지만 양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언자이다.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누구누구는 분명히 오래 못 버틸 것이며 소비에 따른 바람직한 우리의 생산 방향에 대해서 침을 튀긴다. 그 중 그들의 공통점은 엄청난 불황을 예상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비구름이 서쪽에서 몰려오고 있다. 곧 태풍과 물난리로



이 종 희  
질라라비농장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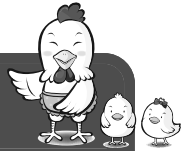
많은 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 태풍의 조짐은 이미 2년 전에 예상됐었다. 무시무시한 종계입식과 설비 투자로 생산량은 인위적으로 제어하기에는 불가능해졌다. 발 빠르게 인티 회사는 자기 숫자는 줄여가고 있으며 개인은 불린 배를 두드리고 있다.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다. 질병이 터지라고 고사를 지내는가 하면, 불법이니 합법이니 법을 논하는 부류도 있고, 술이나 먹으면서 인생 뭐 있냐고 질탕하게 노는 인간도 있다. 어쨌든 명심할 것은 물속에서는 사람 손을 잡는 법이 아니다.

엄마의 경고는 항상 무시된다. 무시하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옳은 말들이 잔소리임을 모르는 엄마의 속성에 있는지 따지지 말자. 엄마의 경고가 무시되는 이유에 대해서 따진다면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나는 술을 먹고 아들은 그 빈 잔에 술을 채웠다. 기특한 아들이 물었다. 앞으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신 있게 말했다.

“나는 언젠가부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일이 부질없음을 깨달았다. 아니 경고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해가됨을 깨달은 거지. 그냥 주기적인 재앙일 뿐이야. 경험이 너를 살릴 것이다. 불과 물이 난무하면 생각과 판단은 오히려 너를 망친다. 살아남을 전략은 오직 두 가지 뿐이다. 움츠리거나 도망가기.” **양계**

## 전국 닭 질병 방역 순회 세미나



본회에서는 전국 닭 질병 방역 순회 세미나를 5월 8일, 10일, 15일 삼일간에 걸쳐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 지역 양계농가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교육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비 고
2007. 5. 08(화)	안양(검역원 대강당)	경기, 강원
2007. 5. 10(목)	대전(충남대 KT&G 농업생명공학관 강당)	중부
2007. 5. 15(화)	경주(현대호텔)	남부

### ◆ 행사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강 사
13:00~13:45	등록	
13:45~14:00	개회 및 인사	최준구 회장
14:00~14:20	정부의 양계질병 방역대책	장기운 서기관(농림부)
14:20~14:50	HPAI 감염경로와 농가 방역대책	이상진 과장(검역원)
14:50~15:10	ND 채혈 활동 및 가축방역의 중요성	노천섭 전무(방역본부)
15:10~15:20	휴식	
15:20~16:00	저병원성시 백신접종 및 근절방안	손영호 수의사
16:00~16:40	농장에서의 마이코플라스마 예방	한태욱 교수(강원대)